저는 금융 자산을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으로 분할해서 투자하고 있는데요.

이런 전략을 활용하시거나 혹은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근데 최근에 고민이 있는데요.

지금 같이 금리가 높은 시기에는 안전자산이 그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프) 가장 기본적인 자산 배분 전략인 SCHD + TLT 전략이 최근 들어 이렇게 저조한 성과를 보이는 이유도 그 때문이죠.

(SCHD, TLT, 개별 그래프) 단순히 성과가 저조한 것뿐만 아니라, 안전 자산이 위험자산과 동행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요.

애초에 자산배분 효과를 목적으로 시작한 투자 전략이 그 효과를 상실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저처럼 포트폴리오에 편입할 안전자산을 고민하시는 분을 위한 ETF를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미국 초단기 채권 ETF, SGOV입니다.

(표) SGOV는 1) 자산 배분을 위한 안전자산 역할만 아니라,

2) 당장 투자 판단이 어려운 시기 예수금 보관이나,

3) 고환율 시기 달러 투자,

4) 안전한 채권 배당 전략 등 다방면에 활용할 수 있는 데요.

특히나 미국 붕괴를 제외하면 사실상 완전 “무위험”이라는 특징이 매력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 중에서도

SGOV를 SCHD와 함께 활용했을 때

자산배분 효과를 중심으로 분석해볼 텐데요.

(그래프) 특히, 장기 채권 ETF인 TLT와 비교해서

안전자산으로서 성과를 상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미국 단기 채권 ETF가 왜,

미국 주식 투자자가 반드시 한번은 사게 될 ETF인지 이해하게 되실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들어가 보시죠.

(본문)

분석에 앞서 SGOV에 대한 기본 정보는 알고 가야겠죠.

SGOV는 미국 초단기 채권 ETF인데요.

3개월 미만의 미국 국채에 투자하는 매우 보수적인 ETF입니다.

경제학이나 금융이론에서 말하는 무위험 자산에 가장 가까운 자산이죠.

그 이유는 가격 하락 위험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프로 보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프) 이 그래프를 보면 SGOV의 가격이 거의 변하지 않고,

한 자리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시죠.

그야말로 변동성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는데요.

우리는 투자를 하려는 거지, 현금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려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자산 가치가 변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죠.

근데 사실 이 그래프는 틀렸습니다.

SGOV는 초단기 국채 ETF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매월 단기금리에 맞춰 꼬박꼬박 배당을 주는데요.

(그래프) 배당을 고려한 SGOV의 수정 주가를 다시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하락하지 않고 부드럽게 상승하네요.

다만, 상승률이 높거나 낮은 구간이 있을 뿐이죠.

물론, “지금보다 단기 금리가 더 오르면,

금리 상승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SGOV는 “초단기” 채권 ETF이기 때문에

금리 상승에 따른 위험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금리가 하락하면 배당 매력이 떨어지죠.

가격은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배당 매력이 떨어지면 그 때 쉽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좀 더 깊이 있게 분석해볼까요?

이번 분석에 활용할 자산은 SCHD, TLT 그리고 SGOV입니다.

자산배분전략 테스트에 앞서

오늘의 주요 분석 대상인 SGOV와 TLT의

투자 성과부터 보시죠.

<본문: 개별 성과 리뷰>

(그래프) 먼저 1999년 이후부터 SGOV와 TLT의 누적 수익률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2008년 금융위기 이후부터,

미 연준의 양적완화와 금리인하 기조가 장기적으로 지속됐죠.

그래서 TLT의 성과가 상당히 좋은 편이었는데요.

반면 같은 시기 SGOV는 낮은 금리로 인해 거의 배당 매력을 상실했습니다.

반대로, 최근에는 고금리가 어느 정도 지속되면서,

TLT가 그 어느때보다 저조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SGOV는 배당을 통해 부드럽게 이익을 가져다주고 있네요.

기특합니다.

(그래프)

MDD를 살펴보면 장기채권과 단기채권은 차이가 훨씬 극명하게 보이는데요.

SGOV는 MDD가 0으로 수렴하는 반면,

TLT는 최근 들어 -48.35%의 MDD를 기록했습니다.

(다시 수익률 그래프)

그럼에도 몇몇 분은 이런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단기 채권이 안정적인 건 알겠어.

근데 너무 수익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아무리 안전자산이라지만 투자 수익률이 너무 낮은 것 같다.” 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보다 좀 더 극단적인 상황을 보면 어떨까요?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고물가, 고금리가 훨씬 충격적이었던 1970, 80년대처럼 말이죠.

(금리 그래프)

1970년대에는 미국채 3개월물 금리가 무려 17%까지 달했던 적도 있습니다.

만약 이 시기에 SGOV에 투자했다면,

배당률이 거의 17%에 달했을 수 있다는 말이죠.

그것도 무위험으로요.

(누적 수익률 그래프) 1970년대부터 두 자산의 성과를 다시 비교해보죠.

먼저, 주의할 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그래프에는 미국채의 장단기 금리를 활용해서 추정한,

TLT와 SGOV 데이터를 사용했습니다.

1999년 이전 데이터는 추세만 봐주시고 구체적인 데이터 활용에는 주의해주세요.

다시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70, 80년대 SGOV의 성과가 어마어마하죠?

별도의 위험자산 투자가 필요 없었을 만큼 가파르게 상승했는데요.

높은 금리수준 덕분입니다.

반면, TLT의 성능은 아주 저조했습니다.

1975년 초 4%대였던 20년물 금리가,

최고점일 때는 최대 16% 수준까지 치솟았는데요.

(TTR)

그 기간 역시 오래 지속되죠.

때문에, 장기채권의 가격 역시 전고점을 회복하는데 10년 넘게 걸렸습니다.

이제 SGOV와 TLT의 자산배분 효과를 분석해볼까요?

분석을 위해 SCHD + TLT, SCHD + SGOV로 각각 결합해서 비교해보는 게 좋겠네요.

**섞고 섞고 돌리고 섞었습니다.**

<포트폴리오 성과 리뷰>

(리스크 리턴 프로파일)

리스크-리턴 프로파일부터 보겠습니다.

안전자산의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각 전략의 리스크와 리턴이

함께 낮아지는 경향이 한눈에 보이네요.

이번 영상에서는

장기채권과 단기채권의 자산배분 효과를 명확하게 비교하기 위해,

여기 SCHD, SGOV 5:5 전략과 SCHD, TLT 5:5 전략에 집중해보겠습니다.

(누적수익률)

각 전략의 누적 수익률입니다.

특이한 지점을 발견하셨나요?

여기, 여기 그리고 여기

각각 닷컴 버블, 금융위기, 코로나 충격으로 인해

경기 침체가 발생한 시기인데요.

이 시기에 TLT를 편입한 전략은

하락폭을 상당히 방어했거나 오히려 상승했네요.

반면 SGOV를 편입한 전략은

SCHD의 하락 패턴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물론 하락폭은 절반으로 줄였죠.

그 이유는 90년대 이후 매번 경기 침체가 발생할 때마다,

연준이 금리인하로 대응했기 때문인데요.

금리 인하로 인한 채권가격 상승은

듀레이션이 긴 장기 채권의 가격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주식의 하락을 상당 부분 방어할 수 있었죠.

반면, 듀레이션이 짧은 단기 채권은 금리인하 효과가 미미했습니다.

오히려 배당 매력만 낮아졌죠.

그래서 경기침체 시기에는 SGOV가

안전자산으로서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네요.

그럼에도 최근에는 SGOV를 50% 편입한 전략이

TLT를 편입한 전략보다 높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역시나 고금리 때문이죠.

최근에는 TLT 성과가 너무 저조해서,

SCHD의 상승분까지 다 깎아 먹어버렸네요.

반면, SGOV는 안정적인 배당을 보여주면서,

SCHD와 배당궁합이 아주 좋았습니다.

(MDD)

이어서 변동성에 좀 더 집중해 보겠습니다.

MDD 그래프를 보시죠.

SGOV를 편입한 전략의 MDD는 -25.41%로,

금융위기 시기인데요.

이 시기에 SCHD는 -49.26% 하락했습니다.

방향성 자체는 바꾸지 못했지만 하락폭은 절반 정도로 줄였네요.

반면, TLT를 50% 편입한 전략은 금융위기 시기에

-15%가 넘지 않는 평온한 하락만 보여줬는데요.

최근에는 역변의 아이콘이 되어서 MDD가 -25.97%나 되네요.

최근에 약간 회복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 성과는 장기 금리 전망에 달린 것 같죠.

저도 현재 포트폴리오에 TLT를 일부 편입하고 있어서

이 친구가 아픈 손가락 역할을 제대로 해주고 있습니다.

(5년 롤링리턴 그래프)

마지막으로 고점 잡기 방지 목적의 분석이죠.

5년 롤링 리턴 그래프로 실제 투자 안정성을 살펴보겠습니다.

TLT를 편입한 전략은 1999년 이후부터

계속해서 안정적인 5년 투자 성과를 보여줬는데요.

최근 들어 성과가 정말 저조하네요.

반면 SGOV를 편입한 전략은

전체 기간에서 0보다 큰 양수 수익률을 보여줬습니다.

매우 평온하네요.

SCHD를 활용한 배당 전략을 사랑하는 분이라면

안전자산으로 SGOV가 궁합이 좋았을 것 같습니다.

<결론>

오늘은 이렇게 SCHD에

SGOV와 TLT를 각각 편입한 전략을

비교 분석해봤는데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안전자산으로 한가지 자산만 편입한다면

SGOV와 TLT 어떤 자산을 고르는 게 좋을까요?

물론 꼭 한가지만 고를 필요는 없습니다.

적당히 섞으면 훨씬 좋죠.

SGOV는 단기 채권이라

경기 침체 같은 급격한 위기 상황에는

TLT와 비교해서 자산배분 효과가 떨어지는 측면이 있는데요.

반대로, 요즘 같은 고금리 시기에는 그 효과가 훨씬 탁월합니다.

저는 주로 TLT와 금을 안전자산으로 활용하지만,

그 중 일부를 SGOV로 편입할 이유는 충분해 보입니다.

무위험에 심지어 현재 배당 매력도도 너무 높은 것 같아서요.

(표)

특히, 저는 SGOV를 자산배분 목적만이 아니라,

6개월 이내 단기 자금 파킹 목적으로도 자주 활용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결혼 준비를 하면서,

주택 구입자금을 잠시 SGOV에 파킹해뒀습니다.

높은 월배당은 물론이고

의도치 않게 환차익까지 누릴 수 있어서

상당히 짭짤했습니다.

여러분도 자산배분 목적 외에도,

잠시 투자 판단을 유보하고 싶을 때

단기 자금 파킹 목적으로 SGOV를 활용해보세요.

실전 투자에 매우 유용합니다.

저는 현재 기업에서 데이터 분석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는데요.

부업으로 시작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는,

Python을 활용해서 분석한,

깊이 있는 금융 분석 컨텐츠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든 금융 데이터 분석 영상을 놓치지 않고 계속 챙겨 보시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투자는 멘탈이다. 투멘입니다.